

# 화순 미세먼지 줄이기 조례 입법 예고

##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등 선제 대응 산업 등 4개 부문 저감대책도 추진

화순군은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지원조례 제정 등 미세먼지 줄이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해 미세먼지 차

단 마스크 등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기로 하고 5월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또 대기오염측정망을 10월까지 화순군 CCTV관제센터 옥상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모니터링 해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화순군 홈페이지 및 옥외

광고물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미세먼지 수치 및 행동요령을 홍보해 군민이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송부문 ▲산업부문 ▲생활부문 ▲취약계층 부문 등 총 4개 부문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송부문에서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132명에게 지원할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150명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올해 3대에서 10대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올해 13대에서 내년엔 15대로 각각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화순군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에 대해서 점검반을 구성, 분기별 지도 및 점검하고 오염원 배출 고질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미세먼지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생활부문에서는 노면 청소차량을 수시 운행하고 환경부 정책에 맞춰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화순군은 취약계층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지원조례 제정 후 어린이 및 노인 등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등 보호 장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군민이 미세먼지에 따른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서호령 기자

### 주목! 이사람

**구충곤 화순군수**는 13일 오후 2시 도곡면 선사체험장에서 열리는 화순 고인돌 선사체험장 개장식에 참석한다.

**유두석장성군수**는 13일 오전 10시 군청군수실에서 잔디부산물자원화업무협약을 맺는다.

**김성 장흥군수**는 13일 오후 2시 영광2구영회당에서 열리는 '이야기 장흥만들기' 준공식에 참석한다.

## 장흥 항공관광·해양물류 시장 개척

### 하이글로벌그룹과 협약...렌터카 사업 추진

장흥군이 항공관광과 해양물류 시장 개척에 뛰어들었다. 장흥군은 최근 하이글로벌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과 항공관광, 해양물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하이글로벌그룹은 일단 자동차 등록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과 번호판 제작 등 관련 사업이 확정되면 장흥군은 올해 100억원 이상의 지방세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장흥군은 연차적으로 200억원이 넘는 지방세 수익을 계산하고 있다.

협약에 나선 하이글로벌그룹은 항공관광과 해상물류 사업의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항공관광과 해양물류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흥군은 최근 하이글로벌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동차 대여사업과 항공관광, 해양물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하이글로벌그룹이 명량문화재단을 통해 장흥지역 각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며 "노력함이 연안항으로 지정되면 해양물류의 거

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혀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영광군 물무산 행복숲 맨발 황톳길이 치유공간 기능으로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영광 물무산 맨발 황톳길 인기

### 자연이 주는 건강 체험 방문객 호평

영광군 물무산 행복숲에 마련된 맨발 황톳길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임도가 아닌 숲속에 조성된 황톳길은 자연이 주는 건강을 경험할 수 있는 치유공간이라는 점에서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12일 영광군에 따르면 신발을 벗고 처음 황토에 발을 내딛으면 발가락을 간지럽히는 이질적인 촉감에 신경이 곤두선다. 노랑계 물들어가는 발등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기다 보면 처음의 긴장은 사라지고 발을 통해 상쾌한 자연을 느낄 수 있다.

황토는 체내 노폐물을 분해, 피부 미용과 신진대사에 좋고 세균의 증식을 억제해 무좀 치료의 효능이 있다. 맨발 걷기는 혈액 순환과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두통과 불면증을 해소하며 피로 해소와 치매 예방에 효과적

이다. 맨발 황톳길 걷기는 황토와 맨발 걷기의 시너지 효과로 인체의 축소판인 발을 효과적으로 자극해 스트레스 해소에 만점이다.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가볍게 발을 지압하면서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정화시켜 준다.

물무산 황톳길은 미생물이 풍부한 영광군의 질 좋은 황토만을 사용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부드럽고 폭신해 노약자와 어린이들도 함께 걷기에 무리가 없다.

영광군 관계자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건강과 재미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황톳길을 지속적으로 관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전국 최고의 명소를 가꿔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영광=곽용순 기자

## 나주 시민감사관·공직자 청렴 워크숍

### 청렴 특강·청백리 유적지 탐방 진행

나주시는 최근 장성군 평생교육센터에서 '2018년 상반기 시민감사관 및 공직자 청렴 워크숍'을 갖고, 공직자 청렴 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시민감사관, 실·단·과·소 및 읍·면·동 회계담당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은 민선 6기 공약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들의 역량 강화와 회

계·감사 담당 공무원들의 청렴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나주시는 '청렴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 특강과 더불어, 청백리 체험으로 조선시대 청빈(淸貧)의 상징인 박수량 백비와 관수정 등 청렴유적지 탐방 등을 진행했다.

시민감사관 김재준씨는 "시민감사관

들이 밝은 지역사정을 바탕으로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시민 불편사항을 제보해 시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시민 입장과 눈높이에서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나주의 청렴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자"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청렴한 나주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 본연의 역할 다짐과 책임감을 고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시민감사관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 장성 재활용 쓰레기 자원화

장성군은 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인 ㈜전주에너지와 재활용 쓰레기를 자원화하는데 양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장성군은 쓰레기 수거 후 폐비닐류와 폐목재류를 선별해 ㈜전주에너지로 반출하고, 업체 측은 이를 고효율 연료로 자원화하는데 향후 10년간 협력키로 했다.

장성군은 20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자원 처리 업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을 준비해 왔다.

/장성=전일용 기자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나 주 010-5617-2605
- 010-3713-7458
- 함 평 010-3773-2522
- 영 광 010-8666-2882
- 무 안 010-3621-8989
- 화 순 010-3666-5888
- 장 성 010-3666-1300
- 담 양 010-4154-8277
- 장 흥 010-3613-6114

# 나주, 2층주택,사정상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4000만원~~
- 급매 - 6200만원
- (일시불 완불조건)
- H. 010-6838-1230